지역현안 해결 '총력'

민주-군산시, 당정협의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 주요 현안 추진 전략 논의

군산시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당 운영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023년 국가예산 반영 상황과 국회단계 국비 확보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과소반영 되거나 미반영된 지역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군산 어청도~연도 항로분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있으며 8개 사업에 436억원 규모다.

이어서 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 논의도 이어졌다.

2023년 최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안착과 군산시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조성', '군소음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방안' 등 16가지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다양한 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갈 때마다 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다."라며, "시민을 위해 당·정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고견을 모아 군산발전에 필요한 핵심예산들을 이번 국회 심의에서 대폭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일 군산시의장은 "군산시민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친환경차 흐름 맞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속'

익산시,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 · 등기우편 · 방문 신청

익산시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내년까지 종료 예상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이달 7일부터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흐름과 연료비 급상승으로 경유차의 입지가 좁아지고 내년부터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한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에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방세 체납(환경개선부담금 등)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신차 재고 부족 때문에 차량 출고 연장으로 폐차를 못하는 경우에는 출고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신차 출고 시까지 폐차를 연장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노후폐차 접수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과 등기우편, 방문 접수, 문자접수로 진행이 가능하다.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ksan.go.kr) 공고문 또는 익산시 콜센터 1577-0072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흐름에 발맞춰 노후 경유차를 빠른 속도로 조기폐차해 대기오염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조기폐차 836대 신차 구매 230대를 선정하여 21억원을 지급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유 · 청소년 · 장애인 스포츠복지 강화

익산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화한다.

시는 국민체육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1인당 지원한도를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 늘리고 지원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스포츠 강좌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만 5~18세 유·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19~64세 장애인이다.

신청기한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https://dvoucher.kspo.or.kr) 통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팔봉동 실내체육관에 있는 체육진흥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문화와 체육,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행복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활용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등 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행사'를 중국과 동시 개최하고, 양저우시와 우호·경제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 · 중수교 30주년 내실화 강조

군산시-양저우시, 우호 · 경제강화 협약체결

군산시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행사'를 중국과 동시 개최하고, 양저우시와 우호·경제강화 MOU를 체결하는 등 최근 경색된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과 새로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일, 군산과 양저우에서 동시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 기념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완진젠 양저우 시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양도시 공동 주관으로 추진되는 최대 공식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MOU를 체결한 양저우시는 인구 461만명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이자 신라말기 명문장가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유학시절 관직 생활을 하던 중 격황소문(激黃巢文)을 작성해 황소의 난을 진압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최치원기념관을 건립한 도시로 군산시와 인연을 맺어 2014년 군산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 이래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최치원 웨비나(웹세미나)로 이뤄졌다.

특히, 이례적으로 도시 간 교류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외교부 대표로 김승호 주상하이 한국총영사, 장청강 주광주중국 총영사가 참석해 양 도시간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양해각서(MOU)」 체결에 함께하는 등 국가적 관심 속에서 한·중 지방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그 의미를 더 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의 주요내용은 지난 8년간 양도시가 이어온 인문·문화 교류를 넘어 교육 및 관광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무역 규모 확대를 위한 기업의 상호 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 등 교류 내실화 방안이 담겨 있어 향후 해당 분야 간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신승근 교수 초청 전직원 특강

군산시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제 전도사' 신승근 한국 공학대학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신승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발굴 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과 지역만의 매력이 담긴 특산품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답례품 선정 시 군산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부자가 고향에 내민 따뜻한 손길이 고향 곳곳에 느껴질 수 있도록 기금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복지 사업 등 이미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은 날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군산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했으며 23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사업예산은 5,750만원으로 가구당 25만원 정도를 지원해 23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LPG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시는 LPG 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지원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부의 LPG 금속배관 의무화 정책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1억3,750만원 예산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가구도 대상으로 포함해 50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익산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시설에 대한 등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지하수법 위반(허가·신고)에 대한 벌칙금·과태료를 면제한다.

또한 이행보증금·수질검사 면제와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지하수는 시민 생활에 직결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할 환경자산"이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